

2024 년 9 월 22 일 “(생명의 공동체 6) 함께 성장의 길로”(엡 4:22-24)

교인의 수와 헌금, 사역의 종류와 규모는 교회의 성장을 말해주는 지표일 수 있지만,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보면 교회의 성장은 성도의 성숙에 직결됩니다. 오늘은 교회의 성장의 본질적인 길에 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1] 혼돈과 갈등에 대처하려면

공동체가 혼돈 속에 처할 때, ‘치유 프로그램’ ‘워크샵’ ‘중보기도 모임’ 등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변화는 속성상 더디기 때문에 인내가 부족하면 영적 즐거움과 친교를 잃기 쉽습니다.

스캇 펙은 혼돈과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한 세가지 길을 언급합니다(‘어떻게 마음을 비울 것인가’에서).

첫째, 가짜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짜 공동체란 모든 개인의 욕구는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일원들이 일련의 규칙과 운영 방식을 따르는 집단입니다(전체주의 시각을 추구). 개인의 개성이나 욕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사이비 집단, 독재국가.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가져오는 좋은 방편으로 보이지만 옛 사람의 방식입니다(22 절). 강제와 위협의 수단, 그리고 지도자의 카리스마를 내세워 인간의 자유로부터 빗어지는 많은 좋은 열매들을 차단합니다.

둘째, 공동체 안에 위원회 조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각 위원회가 자기 일에 초점을 갖고 일하도록 하고, 위원회들이 협력하도록 도와줍니다(우리 교회의 조직적 형태). 그러나 이런 제도 창출과 운영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셋째, 공동체 여정의 어떤 단계에서도 의식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구성원들이 의사 소통의 장애요소를 제거하는 “비우기”의 영적 작업입니다. 상대와 소통할 때 방해가 되는 요소를 내 안에서 발견하여 비운다면, 상대가 나의 생각, 정신, 더 나아가 나 됨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업이 어렵습니다.

[2] ‘비우기’와 성장

비우기 작업은 주로 나의 주장과 신념, 편견, 고집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만 한다고 저절로 되지 않고 각자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나를 비추시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23 절 - 성령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한다(Renew)는 뜻).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신념이나 고집은 자기 정신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습니다. 이것을 없애면 나의 존재가 위태롭다고 느낄 만큼 깊이 뿌리 박힌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신앙이 변질되면 예수님의 화목의 정신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여 타인에 대하여 경직되고 배타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와 교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바울은 성령이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목표로 하여)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24 절).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과 방식과 마음과 목적을 담은 존재로서 만물과 연결되고 교통하며 하나님 사랑으로 돌보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참 의로움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맺은 관계 속에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이며,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어 최상의 가치를 누리는 자입니다.

줄이면 예수님을 닮고 따르는 사람이 될 때 성령께서 도와 주셔서 하나님의 참 형상으로 회복되어, 연결되고 교통하고 사랑으로 돌보는 영적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우기’의 길을 통해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까? 어떤 면이 좋았습니까?
2. 스캇 펙이 말한 ‘비우기’ 작업에서 나는 어떤 면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까요?